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식약처 / 식품의약품안전처	참 고 자 료	배 포	2019. 7. 2.(화)
		담 당 과	위해사범중앙조사단
		과 장	홍헌우 (☎02-2640-5054)
		사 무 관	유명종 (☎02-2640-5061)

유소년 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 적발

前 프로야구 선수, 유소년 선수들에게 불법 의약품 주사·판매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**유소년 야구선수들**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**불법**으로 **유통**되는 **아나볼릭스테로이드**와 **남성호르몬** 등을 **주사·판매**한 **유소년야구교실 운영자**인 이 모씨(남, 35세, 전(前) 프로야구 선수)를 **구속**하여 **조사**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

※ 아나볼릭 스테로이드(단백동화스테로이드) :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·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(테스토스테론)의 한 형태.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하여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, 복통, 간수치 상승, 단백뇨, 관절통, 대퇴골골두괴사, 팔목터널증후군, 불임,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

□ 수사 결과, 이모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**"몸을 좋게** 만들어주는 **약**을 맞아야 **경기**에서 **좋은 성적**을 거두고 원하는 **프로야구단**이나 **대학**에 들어갈 수 있다"고 속여,

○ 식약처는 **불법의약품**을 **투여** 받은 것으로 **의심**되는 **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**을 **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**를 **의뢰**하였으며, 그 결과 **2명**은 **금지약물**에 대한 **양성**으로 **확정** 판정되었습니다.

※ 전체 7명 중 나머지 5명은 도핑 검사 진행 중에 있음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